

문단지 앓으려면 ‘문화법회’ 열어라

김응철 교수, 선리연구원 ‘사찰경영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서 제안

신도가 없거나 시주금이 격감해 운영이 힘든 사찰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문 닫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찰경영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한국 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주최로 11월 9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가 ‘법회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조기룡 연구교수가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발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자는 ‘문화·복지’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회 운영과 관련해 “어법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성과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법회동참자들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성의 변화를 고려한 법회 운영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문화법회’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문화법회를 법회에 문화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문화행사 과정에서 법회의식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법회의식에 찬불가, 불교무용 등의 활용 및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문화행사



사찰이 불교콘텐츠를 갖고 지역축제를 여는 것은 문화포교의 좋은 예다. 사진은 해인사에서 주최한 팔만대장경축제에 참가한 어린이가 체험행사서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을 배우는 모습.

시 불교문화콘텐츠의 적절한 배치가 요청된다. 김 교수는 “문화법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찰의 신도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룡 연구교수는 “타 종교인 혹은 무종교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면으로 전하는 직접 포교는 때로는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와 문화행사가 우선된 간접적인 불교와의 만남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면서 사찰경영의 키워드로 문화·복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체 불교계 복지시설 중 과반수 이상이 서울·인천·경기·영남에 집중돼 있다”며 “충청·호남·제주 지역에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교계 복지시설이 전체에 69% 차지한다”

며 “여성복지, 부랑인·노숙자 복지시설 증설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대표적 불교문화행사인 산사음악회에 대해 “불교계에서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가수들의 고정무대가 됐다. 개별 사찰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내 학교의 동아리, 이웃 종교의 찬조 출연 등을 적극 유도해 사찰이 단순한 불교인만의 수행처가 아니라 열린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지역의 문화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하동 ‘야생차 축제’,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제’와 같이 사찰이 불교적 콘텐츠를 갖고 지역축제에 참여하거나 축제를 개최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불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인데 많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찰의 장점을 살려 지역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지역 내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고 우호적 정서를 확산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최동진·이강식 기자(금강신문)는 ‘사찰의 지역 특화상품 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 특화상품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찰을 소개했다.

이나라 기자 bohjung@buddhapia.com

최연식 교수, 청송학술상

‘대승사론현의기’ 교감·간행 공로



최연식 교수 (목포대 역사문 화학부) 대승사론현의기 (불광출판사) 교감

최연식 목포대 교수가 ‘대승사론현의기’ 교감·간행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청송장학회(회장 소광희)는 11월 6일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제4회 청송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연식 교수는 한국불교사상의 기반을 형성한 최고(最古) 불교사상서로 알려진 ‘대승사론현의기(大乘四論玄義記)’를 교감해 원효·의상의 사상은 (중국

이 아니라) 백제의 삼론학으로부터 영향 받았음을 밝혀, 한국 불교사상이 중국불교의 모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했음을 증명했다.

최연식 교수는 화엄과 선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사상의 전개과정을 주된 국가의 불교계 동향과 관련해 검토해 왔다. 동시에 그는 한국 고대와 중세의 고문서 및 금석문에 대한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청송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최연식 교수가 교감한 ‘대승사론현의기’(불광출판사)는 백제 승려 혜균(慧均)의 삼론학 저술을 판본 대조를 통해 복원한 것으로 한국불교사상사의 기술이 일부 수정돼야 할 정도로 의미 깊은 성과를 산출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나라 기자

“중생은 이미 완성된 부처”

불광연구원 광덕 스님 선사상 조명

불광(佛光), 불일(佛日)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경전에 등장하고 있다. 광덕 스님 또한 불광이라는 말을 사용해 세상의 빛이 되 고자 했다.

불광연구원은 13일 불광사 교육원에서 제5차 학술연찬회 ‘진리의 빛, 수행의 향기’를 열고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과 선사상을 조명했다.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을, 황금연 박사(동국대 선학과 강사)가 ‘광덕 스님의 선사상과 수행론’을 발표했으며,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자유주제로 ‘이차돈의 가계와 신라의 불교 수용’을 발표했다.

이종수 연구교수는 “광덕 스님은 전법의 명칭으로 ‘불광(佛光)’을 사용했다. 부처님의 광명이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어지는 세상, 즉 불국토를 꿈꾸며 ‘불광’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교수는 “반야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반야비라미 염승과 보현행원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법을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연 박사는 “광덕 스님은 중생을 ‘뉘야야할 중생’이 아닌 ‘이미 완성된 부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본각이란 본래 깨달아 있어 다시 두 수행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당대 조사선사(祖師禪者)들의 ‘본래무사(本來無事)’를 표방한 ‘무수지수(無修之修)’를 말한다”며 “광덕 스님은 당대 조사선이 가진 측면을 그의 간화선 수행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스님의 강론에는 ‘깨닫기 위한’과 ‘깨달은’이란 말이 공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이어 “광덕 스님의 ‘깨달은 수행’은 성철 스님이 ‘출가하여 화두를 받아 오매일 여의 경지를 거쳐 확절대오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쳤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며 “‘확절대오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깨달아야함을 명백히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라 기자

“사섭법 실천이 상생의 삶”

‘생명화쟁’ 불자·기독교수 공동학술대회

‘현실 외면한 전일성 추구는 또다른 폭력’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갈등과 취척이 괴로움·갈등·대립의 원인이다.” “인간 개개인에게 관심은 소홀한 채, 전체 생명체들의 조화와 상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절망과 좌절을 매몰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경배)가 11월 5일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생명화쟁’을 주제로 개최한 제5차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종교 간 이견의 폭을 좁히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등 종교학자들은 뜻생명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상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다.

각성 스님(동국대 정각원 법사)은 주제발표 ‘초기 불교의 수행 관점에서 본 생명화쟁’에서 “사섭법(四攝法)을 통해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초기 불교에서의 상생은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의식 전환에 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환경 등의 관계는 행위자와 감각대상세계와의 관계다”며 “이

러한 관계에서의 갈등과 대립, 폭력과 파괴 등의 문제는 감각대상세계를 바라보는 행위 주체자에게 있는 것인지 외부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사섭법을 언급하면서 “삶의 연기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생들은 현상에 취착(就捉)하고 괴로움을 낳는다. 윤회전생의 근원이며 모든 갈등의 요인이 되는 무명과 갈애를 소멸하기 위해 팔정도 수행으로 열반·해탈을 체득하는 것이 고통을 여의는 궁극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섭법은 부처님이 네 가지 섭수(攝受,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 들임)를 말하는 것으로 △배푸는 삶[布施] △사랑스런 말[愛語] △이로움을 증장 시키는 행위[利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함[同事]을 일컫는다. 박일준 교수(감리신학대)는 ‘근원적 동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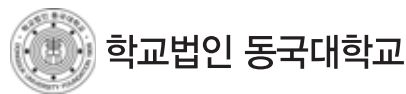
으로서 생명과 진리의 침노사건으로서 생명’에서 “가난한 자의 저항과 탈주를 도외시킨 채 전체로서의 조화가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생명 이해는 언제나 체제를 위한 정치담론의 역할밖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명을 유기적 혹은 우주적 의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개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현실적 토대를 외면한 채, 조월적 전체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부당한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생명의 전일성’에 대한 깨달음’은 기존 체제의 부정의를 그대로 방치하는 폭력 담론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동 교수(성균관대)는 ‘유학의 세 요소와 한국 유학의 상생철학’을 주제로, 김도동 교수(원광대)는 ‘불교적 생명원리에서 본 화쟁과 그 실천 윤리’를, 이재돈 교수는 ‘가톨릭교회에서 보는 생명화쟁’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나라 기자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총장님을 모십니다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경주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경주캠퍼스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서, 교직원과 동문 및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를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기간

2010.11.24(수)-2010.11.25(목) 17시까지

■ 문의사항

TEL. 02)2260-3005~7/FAX. 02)2260-8973 홈페이지(http://web.dongguk.ac.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